

여성, 민족, 그리고 문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김영희

국문초록

이 글은 민족학론과 여성학론의 관계와 결별을 되짚어봄으로써 현재 여성문학이 처한 위치와 위상을 생각해보려는 한 시도이다. 80년대 여성학론이 민족학과 동행하고자 했을 때 가졌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이며, 그 문제의식의 실종이 여성학론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는 것은 현재 여성문학의 길을 열어가는데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여성학론이 그간 보여온 성취와 새로운 모색에도 불구하고, 복합적 시야와 비판적 동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아들이야말로 과거 여성학론이 힘겹게 고민하고 추구했던 바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취지 아래 한편으로 민족학론과의 만남을 시도한 과거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근자의 여성학론에서 두드러진 두 가지 경향, 즉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및 여성성 담론들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재점검해본다.

• 핵심어 : 여성문학 민족문학 여성성 민족주의 차이

1.

여성문학론에서 민족문학을 거론하는 일은 이제 매우 드물어진 듯하다. 여성문학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민족문학과 여성문학의 만남을 지향하는 흐름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다.¹⁾ 그러나 애초부터 이 만남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이런 문제의식은 여성문학론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을 뿐, 이른바 민족문학론 진영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는 여성문학론 편에서도 민족문학에 무관심해진 형국이다. 양자의 무슨 치열한 대립을 통한 결별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관심 자체가 슬그머니 스러져버린 셈이다. 민족문학 논의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만큼,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학론에서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던바 계급이나 민족 등에 대한 관심이 이와 함께 묻혀져온 점일 것이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문학론과 민족문학론 사이에 부정과 적대가 끼여드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여성문학을 내세우면서 민족문학에는 부정적인 일부 남성 논자들이나 여성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본질적'으로 연결짓는 논자들에서 좀더 두드러지긴 했지만, '민족민중문학'적 발상이 그 자체로 페미니즘과 대립하는 것처럼 전제하는 담론이 한때 풍미하기도 했다. 이는 민족문학이나 민족민중운동을 지향하는 편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여성문학 내지 여성운동의 약진이 무슨 위협이라도 되는 양 경계하는 기미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민족문학과 여성문학의 이런 소원함 내지 적대는 어느 쪽으로 보아서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민족문학과 여성문학 양자에 대한 오해에 가까운 단정에 기반하고 또 그런 생각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여성문학론도 민족문학론의 일환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과거와 같은

1) 이는 물론 문학론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여성운동 및 이론 전반의 특징이기도 했다. 그 경위와 공과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줄고 「진보적 여성운동론의 재검토」 『페미니즘 연구』 제2호(2002)에서 시도한 바 있다.

방식으로 반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 사이의 손쉬운 통합보다는 일정한 긴장의 유지가 오히려 각자를 더 내실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터이며, '민족' 이니 '여성' 이니 하는 수식어보다는 그러한 명칭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문학의 지향이 정작 중요한 것이니 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만큼 이 자리에서는, 민족문학론과 여성문학론의 상호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따지기보다, '민족문학'에 대한 관심이, 혹은 무관심이, 여성문학 및 여성문학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우선, 애당초 민족문학적 관심에 공감할 때 여성문학론이 지향했던 바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서, 민족문학적 관심이 수그러든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두 가지, 즉 민족국가/민족주의에 담지된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및 성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런 경향들은 여성적 시각을 첨예화함으로써 민족문학론과 여성문학론의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긴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위험도 적지 않은데,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고민 되어온 '총체적' 문제의식들의 손쉬운 청산과 맺어질 때 이런 위험은 커진다. 여성문학이 '민족문학'이란 이름으로든 아니든 이런 문제의식을 다시 붙들고 씨름해볼 필요가 시급해진 실정이다.

2.

민족문학론도 처음 제기된 70년대 중반 이후 계속적인 발전과 변모를 겪어 왔다. 민족문학론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진영이나 간판으로서의 민족문학 개념은 버릴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꽤 되었다.²⁾ 사실, 어떤 작가나 작품이 민족문학 진영에 속하느냐 아니냐 하는 식의 구분은 처음부터 민족문학론의 요체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민족 현실에 대한 관심이 문학적 성취에도 긴요하다는 발상, 다시말해 분단극복

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중요하며, 그 과제의 참다운 해결은 남한 사회 내부의 민주화의 진척과 별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창작에서나 비평에서나 내실있는 성과를 이룩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발상이 중요했다. 민족문학론이 리얼리즘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전개되어온 것도 이 때문이며, 민족문학론이 이른바 '민족문제'를 소재로 채택한 문학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님도 이 때문이다.

여성문학론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소재나 작가의 성별에 따른 분류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실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며, 이런 문제의식이 얼마만큼 깊고 전면적, 혹은 복합적인지를 '여성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자는 것이 여성문학론의 기본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기법 차원을 넘어선 삶에 대한 궁구라는 차원에서의 리얼리즘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남한 사회가 지닌 성별 억압과 차별에 대한 민감함에서 출발하여 좀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만큼은 민족문학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것이다. 여성문학 역시 여성문제를 그 자체로 자립시키기보다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지어 바라보는 '복합적 시야'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며, 여성문학론이 민족문학론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을 때 문제의식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문학과 민족문학은 근본 발상이나 최선의 성과에서 상통하는 면이 많다. 그렇지만,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도 실제의 창작이나 비평적 작업들에서는 날카로운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기왕의 논의들은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민족문학을 운위하는 논자들은 대개 이같은 문제제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여성문제를 '여성들의 문제' 내지 이른바 '사소사'(些少事)로 치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여성문학론에서는 기왕의 민족문학(론)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그만 중도에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말았다.

2) 임규찬, 「세계사적 전환기에 민족문학론은 유효한가」 『창작과비평』 100호 (1998년 여름) 및 좀더 최근의 본격적인 정리로는 백낙청, 「2000년대의 한국문학을 위한 단상」, 『창작과비평』 107호, (2000년 봄).

남성작가의 작품에 대한 여성문학적 시각에 입각한 비평이 갈수록 드물어지고 여성작가에 집중하게 된 것도 이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 남성작가가 쓴 것이든 여성작가의 작품이든 당대의 중심적인 문제작들을 두루 포괄하지 못하는 한, 여성문학론은 계도화되기 십상이다.

여기서 민족문학과 관계로 적극적으로 고민했던 여성문학 논의들의 공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논의들이 엄정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더 나은 사고로 지양되었다기보다 민족이나 계급 등 '거대담론'에 대한 경계 속에 뭉뚱그려 묻혀진 측면이 강하며, 바로 이런 생략이 현재 여성문학론이 봉착한 일부 곤경과 관련이 있겠기 때문이다. 사실 민족문학론과 함께 가고자 했던 '여성해방문학론'은 그 의의 못지 않게 한계도 많았다. 좀 단순화하자면, 여성문학과 민족문학의 관계는 여성문학적 시각으로 민족문학론을 더욱 튼실히한다는 식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당시 여성운동이 스스로를 전체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 규정했던 것과도 흡사하다.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 차이에 착목함으로써 여성문제를 단순화하지 않겠다는 온당한 문제의식 역시 80년대 운동 전반의 폐해라고도 할 정답주의로 점차 빠져들었다. 결국 여성문학론의 핵심은 '기층여성' 나아가 '여성 노동자계급'의 시각에 있다고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역시 당시의 계급적 시각에 여성적 시각을 단순 합산했다는 혐의가 짙다.³⁾ 더욱이 이런 사고가 소재주의와 결합될 때는 대다수 여성들의 삶이나 여성문학의 실상과도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컸으니, 여성들의 삶에 각인된 성별적 특수성, 여성들의 노동이나 계급적 귀속성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었던 것이다. 여성문학으로서는 이같은 접근이란 궁색하기도 하고 일종의 자신감의 결여이기도 하다. 민족문학과 관련지어 말하겠지만, 차라리 여성문학은 그 자체로 민족문학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가령 박완서나

3) 이런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글로는, 김영혜·이명호·이혜경,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운동과 문학』 1집 (1988) 및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67호, (1990년 봄).

4)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1995).

박경리, 그리고 좀더 젊은 세대로 공선옥 같은 작가들의 작품적 성과는, 여성문학이자 동시에 민족문학의 빼어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여성문학적 문제의식에 미달하는 문학은 민족문학에도 미달한다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사실, 1980년대 여성문학론은 “민중문학, 민족문학의 흐름 속에서 산출된 소설 작품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검토” 하겠다는 패기만만한 선언에서 출발하였다.⁴⁾ 여성 특유의 문제의식이 빠지고는 온전한 민족문학이 될 수도 참된 총체성이 확보될 수도 없다는 이같은 문제제기는 이후 여성문학에 대한 인식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성별(gender) 갈등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그것에만 시야가 축소되어서는—민중문학으로 어떠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여성문학으로서도—곤란하다는 점을 좀더 분명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여성문제’의 구체적 발현형태는 사회 속에서 개개 여성이 접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 ‘여성문제’에는 그것을 특정 형태로 빚어내고 조장하는 계급적 민족적 갈등이 내재적으로 आरो세겨져 있는 것이다. 여성문제가 계급 민족문제와 결합되어 있고 여성문학의 성취가 민족문학의 성취와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명제의 요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이같은 복합적 인식이다. 이런 인식이 쉽사리 버려서는 곤란한 것임은, 90년대 후반부터 여성이론에서 부쩍 새로 부각되기 시작한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성찰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차이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의 연장선상에서 있기보다, 일종의 수입된 담론으로서 오히려 이곳의 과거를 지우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4)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1995).

3.

차이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근자에 두드러진 또하나의 경향이자 민족과 여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 글의 관심사에 직결된 것이 바로, 민족국가/민족주의에 내장된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면모에 대한 비판이다. 민족은 주어진 실체라기보다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식의 착상에 힘입어 진행되어온 민족주의 비판들은 '민족'이라는 범주와 관련된 일체의 사고, 이데올로기, 관행들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대개의 민족문학(론)의 실제 성과들이 남성중심적 면모를 뽐내며 펼쳐버리지는 못해왔다는 여성문학의 문제제기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여성문학에서도 당연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시야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기왕에 '민족'과 관련된 모든 고민과 탐구들을 곧장 '민족주의'와 동일시하여 일괄 부정하는 단순논리에 말려들어서는 곤란하겠다. 사실 민족이 '상상의 산물'임을 강조한 앤더슨 자신만 해도 '민족'이 쉽게 펼쳐버리거나 벗어날 수 있는 무슨 '이데올로기'와는 차원이 다르며 오히려 근대에 사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민족주의(혹은 민족귀속성)란 자유주의나 파시즘 같은 '주의' 보다는 '종교'나 '친족관계'와 같은 차원의 것이라거나, 근대 세계에서 민족귀속성을 갖게 됨은 사람마다 '성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이며, 자신이 말하는 '상상'이란 '날조'나 '거짓'의 부정적 함의보다는 '창조'의 함의를 갖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기도 한다.⁵⁾

그렇다면 민족주의의 폐해에 대한 싸움 역시 '민족'이라는 터전을 훌쩍

- 5) 사실 앤더슨이 보기에, '대면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원초적 공동체보다 더 큰 모든 공동체가 다 '상상된 공동체'인 것이다.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Verso, 1983), pp. 5-6. 민족귀속성에 대한 앤더슨 논의의 위와 같은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성별체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로는 Eve Kosofsky Sedgwick, "Nationalism and Sexualities in the Age of Wilde," *Nationalisms and Sexualities* (New York: Routledge, 1992) 참조.

히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 터전과의 끊임없는 씨름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민족문학론은 민족문제, 민족현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도 처음부터 민족주의 문학과는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하였으며 '관제 민족주의' 내지 '국가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에 앞장서왔음을 다시 상기할 필요도 있겠다. 어디까지나 민족문학이지 민족주의 문학은 아님을 분명히한 것은, 민족주의에 대해 요즘 흔히 제기되는 문제, 즉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내부의 차별과 갈등을 은폐하고 나아가 조장할 위험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민족'을 말하되 그에 대해 간단치 않은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민족'이란 남한, 남북한, 한민족 전체라는 삼중의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적 조건에 충실하려는 노력 덕분이며, 이런 착잡한 조건을 만들어낸 분단 및 세계체제의 역학으로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문제의식 덕분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민족문학적 성과들이 창작이든 비평이든 민족주의의 잠재적 폐해에서 다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민족주의가 갖는 위상이 변화하면서 민족주의의 위험은 더욱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민족주의 비판이 활발해지고 많은 호응을 얻게 된 데는 이런 현실의 변화도 작용했을 터인데, 남한 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을 계기로, 남한의 민족주의는 더이상 대외적인 억압적 배타성이나 수탈의 혐의에서는 면제된 '제3세계 민족주의' 이기만 한 양행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실제로 민족주의 및 민족국가 중심의 사고가 갖는 위험은 더 커졌고, 그와 함께 내부적 폐해들에 대한 인식도 좀더 첨예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문학론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내부의 맹점에 대한 더 치열한 성찰과 반성을 시작할 필요가 생겨났고,⁶⁾ 애당초 여

6) 90년대 초반에 이미 민족문학론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한 바 있다. 가령, 예전처럼 '참다운 민족주의'를 구별해내려 하기보다는 "민족주의와 그밖에 다른 어떤 이념들의 어떠한 창조적 결합이 오늘날 한반도의 민중, 더 나아가 지구상 인류 대다수의 참된 이익에 봉사할 민족운동을 이끌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길이 더 나올 것"이라는 발언이 그렇다(백낙청, 『지구시대의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81호 (1993 가을), p.95).

성문학론에서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맹점들이었다. '민족'이라는 이름이 내부의 문제를 은폐하고 그 해결을 봉쇄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문제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인 것이다. 그런만큼 민족주의의 가능한 폐해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사유와 모색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해내기 위해서도 여성적 시각에서의 적극적 문제제기가 절실하며, 여기서 최근 제기되는 민족주의 비판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생겨난다.

다만, 여성과 민족을 단순대립시키는 식의 발상으로는 이런 작업도 내실 있는 진척을 보기가 힘들 것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민족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떠날 수 없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뜻하지 않은 허위의식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그런 단순대립은 실상과도 어긋난다. 민족국가라는 틀은 물론이고 민족주의조차도 여성을 억압하는 힘이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지역에서 여성운동이 민족주의 혹은 민족해방 운동과 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⁷⁾ 민족주의 운동은 여성들이 주체화되고 여성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 두 운동 사이에 긴장이 없었다거나 이런 연대가 여성운동의 의제를 속박하고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니다.⁸⁾ 다만, 민족주의가 여성에 갖는 함의는 주어진 시간적 공간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념하자는 것이다.

민족주의, 민족국가를 일반화하여 그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남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족국가를 둘러싼 고민이 필요한가, 만일 그러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야 하겠으나, 분단과 그로 인한 강고한 군사주의

7) Kumari Jayawardena, *Feminism and Nationalism in the Third World* (London: Zed Books, 1986) 참조.

8) 민족주의와 여성운동의 복잡한 관계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민족주의는 가부장적 담론이자 여성 결사의 자극제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Julie Marie Peteet, *Gender in Crisis: Women and the Palestinian Resistance Move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특히 5장 "Action, Ideology, and Gender in the National Movement".

가 여성의 주변화와 전통적 여성상의 고수를 비롯하여 여성들의 삶에 어떤 질곡으로 작용해왔는가에 대한 근자의 논의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민족 대 여성 식의 논리는 여성문제를 성별만의 문제로 환원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 성별이라는 범주에 집중하는 경향은 90년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문학 및 여성문학론의 한 주도적 특징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얻어진 성과도 적지 않다. 80년대에 정답주의에 눌러 활발한 탐구가 어려웠다면, 90년대에 여성들은 훨씬 자유로워진 행보로 다양한 입장과 시각들을 분출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과감하게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의 키워드가 민족, 민중, 계급이었다면 90년대 이후의 키워드는 성애, 몸, 차이, 문화이다. 문학에서도 낭만적 사랑과 성애, 몸의 문제가 창작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모성,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등 ‘여성적 차이’가 비평적 키워드로 확산되어왔다. 페미니즘의 한 정신이 ‘사적’ 이거나 ‘사소하다’고 여겨져온 것들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묻는 데 있다면, 가정이나 사랑, 성애에 대한 세밀하고 치열한 모색은 환영할 만하다. 이에 접근하는 시야도 다양해서 그것들에 새겨진 속박과 소외의 작동방식에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들어가는가 하면, 여성을 억압과 희생의 대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주체로 읽어내려는 시도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창작의 다채로운 시도들은 여성문학론의 활성화와도 맞물리면서, 여성문학을 좀더 섬세하게 읽어내며 그 특성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진지한 모색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성문학은 창작과 비평에서 괄목할만한 작업들을 펼치고 있음

9) 가령, 권인숙,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창간호 (2000년 9월).

이 분명하다. 성별에 대한 이같은 '급진적인' 혹은 '문화론적인' 천착은 분명 80년대에 부족했던 부분들이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모색들이 좀더 풍요롭고 내실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계할 지점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구체성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90년대 이후 이른바 '작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구체성'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붙들어야 할 화두이나, 이 화두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적인 것'에 담겨있는 정치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다. '사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접근이 되는 것도 아니요, 단순히 '가부장제'라는 추상화된 관념을 끌어오는 것으로 정치적 분석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작은' 문제라는 말부터가 어폐가 있겠으나, '작은' 문제 역시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추상화에 빠져들 위험이 있기는 이른바 '거대담론' 들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실제로 여성성을 열쇠로 작품에 접근하는 경우 특정한 여성성의 발현에 개입되는 성별 이외의 변수들에 대한 세밀한 천착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고 '가부장제'라는 선언적 혹은 추상적 문제의식을 표명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개 여성성의 긍정적 대안적 면모에 베타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다.¹⁰⁾ 그러나 여성성이든 모성이든 어떤 맥락에서 다른 어떤 이념 혹은 실천과 결합되어 작동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는 달라진다. 여성성에 대한 긍정은 그것이 여성을 속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현실에 대한 예민한 시선과 함께 할 때, 나아가서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낙인을 '해체' 하는 작업까지도 병행할 때 비로소 의미있는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성이든 여성성이든 여성적 글쓰기든 이미 정해진 상을 가지고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 갖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하나의 '문학론'으로서,

10) 성별에 집중하는 문학론이 갖는 추상화나 본질주의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은하 박숙자 심진경 이정희,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사회』 10호, (1999).

여성문학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물론 정해진 상에서 아주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¹¹⁾ 그러나 끝내 기왕의 상을 확인하는 데서 그친다면, 페미니즘으로서나 비평으로서나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비평은 주어진 이론의 적용이나 응용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세계에 대한 사유를 진행해나가는 노력이며, 그렇지 않다면 '문학' 비평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페미니즘으로 보아도 그렇다. 여성에 대한 기성의 고정된 잣대나 관념에 대항해온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아닌가. 어떤 특질은 여성성이고 어떤 특질은 여성성이 아니라거나 '참으로 여성적인' 글쓰기는 이리이러하다는 식으로 미리 규정하려는 식의 발상이 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문학/비평을 속박하는 또하나의 규범이 될 위험은 없는가. '여성적 글쓰기' 나 '여성성'은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기성의 관념과 관행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인가. 여성문학론은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과 좀더 정면으로 대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결국 현재 여성문학론에서 우리는 팔목할만한 약진의 한편으로 그 비판적 계기와 복합적 시야의 약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비평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닌 듯하다. 주목받는 성과를 내던 몇몇 여성작가들이 최근 들어 일종의 동어반복의 늪에 빠져드는 인상인데, 이런 점에 비평이 일조한 면은 없는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강조가 여성이론계를 휩쓸다시피 했는데, 유독 문학 논의에서는 그런 기미가 별반 보이지 않고 여성들간의 공통점, 즉 '여성적 차이'에 여전히 집중할 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문학론이 꼭 이론의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이론계의 위와 같은 유행에도 그 나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문학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못지 않게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소중한 증언이며 증언이어야 한다. 여성들 사

11) 사실 계급 민족 성별이라는 복합적 축을 염두에 두는 논의라고 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면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성별이라는 한가지 관심사만을 가지고 들어갈 때보다는 텍스트의 구체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는 할 것이다.

이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말은 단순히 중산층 여성만이 아니라 '기층여성'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때 문학이든 이론이든 참으로 '여성 전체'의 시각을 담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산층 여성이든 기층 여성이든 개개 여성의 구체적인—다른 처지의 여성들과 공통되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한—삶의 조건에 좀더 육박해야 한다는 요청인 것이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냥 여성' 이기만 한 여성이란 관념에서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여성' 식으로 추상화된 시야에 머물러 있을 때 여성문학으로서의 성취 이전에 하나의 창작으로나 비평으로 이미 결격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추상화를 벗어나자는 것이 이른바 80년대식 사고의 합리적 핵심이었다면, 80년대의 경험이란 망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그 기억과 제대로 대면하는 것이 여성문학론의 비판적인 계기를 강화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 필자 : Kaist 교수

Abstract

Notes on Women, Nation, and Literature

Kim, Young-hee

This paper looks at the current status and position of women's literature in Korea. It return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and national literature, and notes that despite various achievements and new directions in women's literature and feminist criticism, we may be currently witnessing a loss of the complex perspectives and critical momentum. These are what feminist critics worked for in the 1980s, when they tried to reconstruct and establish ties between national literature and "women's liberation literature." This article reviews the efforts of these critics and looks for connections (or disconnections) with two recent trends: critiques of the categories of nation/nationalism and discourses on femaleness.

key word : women's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femaleness, nationalism, difference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